

네이버, 두나무 품었다

AI·검색·결제·블록체인 아우른, 디지털 금융사업 도전

포괄 주식교환 승인, 절차 마무리
교환비율 1대2.54... 지배력 46% 확보
결제 80조 역량·업비트 기술력 결합
AI·블록체인 융합해 금융 혁신 추진
스테이블코인·AI 기반 신사업 확대

네이버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승인하며 두나무를 계열로 편입, 웹3·디지털 금융 기반을 본격 강화한다.

네이버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계열로 편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같은 날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이사회도 해당 안건을 각각 승인하면서 거래 구조가 최종 확정됐다.

네이버는 두나무 편입을 통해 웹3 환경에서 금융·결제·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글로벌 도전의 기반을 확보하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네이버가 두나무를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국내 3400만 명이

상의 사용자를 기반으로 연간 80조원 규모 결제 트래픽을 확보한 최대 간편결제 플랫폼이다. 두나무는 국내 1위이자 글로벌 탑티어 디지털자산 거래량을 기록하는 업비트 운영사로, 자체 블록체인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네이버는 “AI·검색·결제 인프라·블록체인을 결합하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식 교환은 외부 전문가의 기업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산정됐다. 기업가치 기준 두 회사의 비율은 네이버파이낸셜 4조9000억원, 두나무 15조1000억원으로 1대3.06이다. 다만 양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다르기 때문에 주당 교환가액은 두나무 43만9252원, 네이버파이낸셜 17만2780원으로 환산돼 주당 교환비율은 1대2.54로 최종 정해졌다. 즉 두나무 1주

당 네이버파이낸셜 2.54주가 교환된다.

네이버는 “공시내 주식 교환비율은 기업가치 비율을 개별 주식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여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교환 이후에도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한다. 네이버가 보유한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17%에 더해, 두나무 송치형 회장과 김형년 부회장이 보유하게 될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중 각각 19.5%, 10.0%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총 46.5%의 의결권을 확보하게 된다. 포괄적 주식 교환이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일반사업지주사로 전환돼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

두나무 계열 편입 이후 양사는 AI,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기술을 융합해 웹3 기반의 디지털 금융 혁신을 추진한다. 네이버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기술 저변 확대와 인재 양성, 사회적 수용도 제고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K 핀테크의 경쟁력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두나무 편입은 네이버파이낸셜의 금융 서비스 경쟁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전환점”이라며 “웹3 시대 글로벌 도전을 선도할 기술 융합 기반을 만들고 양사의 협력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업 결합의 배경으로 네이버가 AI 분야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후발주자인 데다 광고와 커머스 사업의 한정적인 확장성에 마주치면서 두나무와의 기업 결합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해진 창업자의 이사회 의장 복귀 이후 글로벌 진출과 AI 사업에 광폭 홍보를 이어온 만큼 이번 기업 결합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넘어 AI 사업과도 연계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중동 전력 재편 가속... K-방산, 현지 수요 ‘정합성’ 부각

사막·고온 환경서 운용 신뢰성 주목
지상·항공·항공 전력수요 빠르게 확대
K9·천무·천궁-II 등 경쟁력 확인
K2·FA-50·KF-21 현지조건 일치
유럽 검증 거쳐 ‘2차 성장축’ 기대

중동 지역의 전력 현대화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주요 방산기업의 핵심 무기체계가 현지 수요와 높은 정합성을 보이고 있다. 사막·고온 환경에서의 운용 신뢰성과 장거리 정밀타격, 중거리 요격, 차세대 전투기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며 한국산 장비들이 전방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동 방산시장 재편 속에서 K-방산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사우디·UAE·이스라엘 등 주요 국가들이 추진 중인 지상·항공·항공 전력 강화 프로젝트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KAI)가 보유한 핵심 무기체계가 구체적



지난 10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ADEX2025에서 방산 4대 강국 도약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승용 기자

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동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은 ▲고온·모래·먼지 환경에서도 안정적 작동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드론·탄도탄 대응을 위한 중거리 요격 ▲기

동력 높은 지상 전력 ▲전투기 현대화 ▲신속한 납기다. 한국산 무기체계는 이 조건 대부분을 충족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상전력 분야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ML

RS) ‘천무’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K9은 장사정·고속 연사·자동장전 기능을 갖춰 사막 기동전에 적합하고 다수 국가에서 운영되며 내구성이 검증됐다. 천무는 전략시설을 장거리 위협으로부터 방어해야 하는 중동 특성에 맞춰 수요가 커지고 있다.

항공·요격 체계는 중동에서 가장 빠르게 커지는 분야 가운데 하나다. 사우디 정유시설 공격,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드론 공격 등 실제 위협이 지속되면서 중거리 요격(MRSAM) 확보가 필수 요건이 됐다. 한국 기업에서는 LIG넥스원의 천궁-II가 패트리엇 대비 가격경쟁력과 짧은 납기, 운용 효율성을 바탕으로 중동 국가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가장 근접한 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지상 플랫폼에서는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중동 전차 현대화 구간과 맞물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K2는 고온 역

제, 사막형 냉각, 자동장전 시스템을 적용해 사막 환경에서도 기동성과 지속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유럽산 전차 대비 도입비용과 납기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중동의 빠른 전력 증강 요구와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항공전력 부문에서는 KAI의 FA-50이 훈련기·경공격기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 KF-21은 중동 공군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전투기 현대화 수요와 직결되는 무기체계다. KF-21은 스텔스 요소를 반영한 4.5세대 플랫폼으로, F-35 도입이 지연되는 사우디·UAE, 중형급 다목적 전투기 수요가 남아 있는 이스라엘 등에서 잠재 수요가 예상된다. 고온·먼지 환경을 고려한 설계, 장시간 초계 능력, AESA 레이더 기반 요격·정밀타격 능력 등이 현지 작전 조건과 정합성이 큰 요소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중동이 K-방산의 ‘2차 성장축’이 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中企 성장성 한계... 덩치 키워야 기업 생산성 3.5배 ↑

대한상의, 기업규모별 생산성 분석
성장기피 ‘피터팬 규제’ 개선 요구돼
중견 전환 유예에 DX·AX 조건 포함
제조 AI·레트로핏 확산 필요 강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노동생산성이 최대 3.5배로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성장 기피)’을 유발하는 규제를 손질하고 디지털·AI 전환을 지원해야 국가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발표한 ‘기업 규모별 생산성 추이와 시사점 연구’에서 국내 기업의 1인당 평균 노동생산성(연간 부가가치)이 기업 규모와 비례해 급격히 상승한다고 밝혔다. 종사자 299명

이하 중소기업의 1인당 생산성은 1억 3800만원, 300~999명 규모 중견기업은 2억7680만원(중소기업의 약 2배)으로 집계됐다. 1000명 이상 대기업은 1인당 4억8590만원으로, 중소기업 대비 3.5배에 달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격차의 원인으로 ‘규모의 경제’를 지목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자본장비율이 높아지고 ▲R&D 투자 여력이 늘며 ▲글로벌 시장 접근성이 강화돼 생산성 효율이 구조적으로 개선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업들이 성장 과정에서 규제 증가와 지원 축소를 우려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는 ‘피터팬 기업’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대한상의는 단순한 규제 완화 차원을 넘어 성장

을 유도하는 ‘당근과 채찍’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될 때 일정 기간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는 ‘중견기업 전환 유예제도’에 DX(디지털 전환)·AX(AI 전환) 추진 여부를 유예 조건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단순한 덩치 키우기가 아닌, 생산성 혁신을 동반한 ‘양질의 성장’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실제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이후 혜택을 받는 기업은 지난 2020년 949개에서 2024년 1377개로 늘어났지만, 혁신 없이 혜택만 누리는 ‘진류 전략’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AI 전환과 스마트 제조 체계 구축도 과제로 꼽혔다. 스마트 팩토리 도입률

은 19.5% 수준으로 개선 여지가 크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이 고가의 장비를 새로 들여오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레트로핏(retrofit)’ 방식의 제조 AX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기존 노후 장비에 머신비전·센서를 부착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AI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AI 전환 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해킹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체계 강화도 강조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AI 시대의 핵심은 규모에 따른 비용 절감이 실현되는 ‘규모의 경제’, 그리고 선점하는 자가 모든 가치를 가져가는 ‘속도의 경제’에 있다”며 “중소기업의 자구 노력과 함께, 정부 정책도 제조 AI·로봇 도입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

직무 전문성 중심 중용

>> 1면 ‘롯데 부회장단...’서 계속

롯데는 직무 전문성을 중심으로 핵심 인재를 중용했다. 김송기 롯데호텔 조리 R&D실장은 만 65세의 나이에 상무로 승진했으며, 황형서 롯데e커머스 마케팅부장, 오현식 롯데이노베이트 AI Tech Lab실장, 김송호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PE팀장, 백지연 롯데물산 투자전략팀장 등은 발탁 승진했다.

여성 임원 4명이 승진하고 8명의 신입 여성 임원이 탄생하는 등 여성 인재 등용 원칙도 유지됐다. 조형주 롯데백화점 럭셔리부문장, 심미향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사업혁신부문장, 손유경 롯데물산 개발부문장, 오경미 롯데멤버스 D T부문장이 상무로 승진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